

명문가는 자녀교육에 家運을 건다

12 광주일보 2006년 9월 1일 금요일 제17541호

광주·전남 음악가 日서 협연

4일 도쿄 신주쿠문화센터 대극장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음악가들이 일본 현지에서 요미우리일본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갖는다.

4일 도쿄 신주쿠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협연무대에는 백홍승(플루트), 조성경(피아노), 박지영(피아노), 정현주(소프라노), 정유하(작곡), 백에플루트 앙상블 단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연주 곡목은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0번',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등이며 교향시 '5월'과 한국 가곡 등도 소개한다. 요미우리일본교향악단과의 이번 무대는 단원들과 수차례 교류 공연을 가졌던 백홍승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홍승 씨〉

선영숙씨 가야금 발표회

2일 화순군민회관

선영숙(사)호남연정국악연수원 이사장·사진) 가야금 발표회가 2일 오후5시 화순군민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선 씨는 이번 공연에서 남도민요 '육자배기' '가야금 3중주곡' '시나위 합주' 김병호 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준다. 김육란·김금옥·신현석씨 등이 협연하며 장단은 윤호세씨가 맡는다.

임동선·성금연 선생 등을 사사한 선 씨는 광주국악대전 기약부 장원, 제23회 전국국악대전현악 부문 대상 드를 수상했으며 현재 무형문화재 구례줄풍류 이수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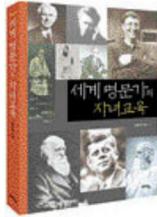


■'500년 명문가' 저자 최효찬씨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내 톨스토이·다윈·케네디 등 외국 명문가 10곳 소개

"명문가는 공황이 잘 맞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합작품이다." 지난해 이창, 정약용 종가 등 조선시대 명문가의 자녀교육법을 파헤친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예담 펴냄)을 펴내 학부들의 주목을 받은 최효찬씨가 이번엔 세계로 눈을 돌렸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에서 저자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고 이름있는 가문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이들의 역사와 전통, 교육관을 들여다본다. 정치·경제·문학 등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외국 명문가 10곳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는지 저자를 따라가 보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명문가가 부자집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명문가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환경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가족 간의 화합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를 보였다. 화목한 가정에서 명문가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



낌없이 평생 후원자가 돼주었다. 과학 명문가인 다윈·퀴리 가문은 아이들이 늘 자연과 가까이 있도록 배려했다. 다윈은 의사였던 아버지로 부터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받았으며, 퀴리 가문의 평등 부부 정신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후원, 대대로 여성 과학자를 배출했다.

가문의 전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다. 600년 명문가의 후손인 톨스토이와 러셀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도 명문가의 자긍심만은 버리지 않아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원만한 인간관계=좋은 CEO(최고경영자)의 조건으로 '인간관계 능력'을 꼽는 CEO들이 많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다. 5대에 걸쳐 150년 동안 존경받는 스웨덴 부자 발렌베리 가는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기업에 근무하면서 폭넓은 인맥을 쌓도록 했다.



일러스트=예담 제공

대통령을 배출한 케네디 가 역시 명문가의 자녀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게 하버드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켰고, 빌 게이츠는 명문 대학에서 만난 똑똑한 친구들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부자가 된 명문가들은 가진자들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다. 발렌베리 가문에서 후계자의 제1 조건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였다.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은 물론 애국심 등의 덕목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했던 것.

▲목표를 향해 꾸준히=다윈의 진화론은 '가문의 학문'이었으며, 무려 5대에 걸친 연구의 결과다. 또

퀴리 가문은 2대에 걸쳐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명문가들은 한가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아일랜드 농부 출신의 케네디 가는 미국 이민 110년 만에 정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 백만장자-국회의원-대통령의 목표를 3대에 걸쳐 이뤄냈다. 톨스토이나 타고르, 러셀은 자녀를 직접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기까지 했다. 이 중 톨스토이와 타고르가 만든 학교는 세계적인 명문으로 발전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예담·1만1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학생연극제 2일부터 6일까지 공동예술극장서

제17회 광주학생연극제가 2일부터 6일까지 오후 7시30분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열일곱살(전남여고·3일) ▲만선(광주정보고·4일) ▲엘렉트라(광주동신여고·5일) ▲가시고기(곡제고·6일) 등 모두 4개 작품이 참여, 열띤 경연을 펼친다.

최우수상 수상작품은 오는 11월 3~9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10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2일에는 비경연 작품으로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극단 '진달래 꽃망울'이 뮤지컬 '그리스'를 무대에 올린다. 전석 무료.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김철호 국악원장 연임

김윤수(70·사진) 국립현대미술관장장 김철호(54) 국립국악원장이 지난 달 31일 각각 연임됐다. 임기는 9월6일 시작되며 각각 3년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개발형

직위인 국립국악원장을 지난달 공모,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두 사람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윤수 관장은 서울대 미학과와 대학원을 나와 영남대 미술대학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을 지냈다. 김철호 원장은 서울대 국악과를 나와 민족음악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하이트맥주

「Fresh 365」 도입!

Fresh 365란?

FTK(Fresh Taste Keeping)시스템으로 일년 365일 언제나 싱그러움과 깔끔한 맛의 하이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용기별to 응용기한을 권장해주는 하이트맥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THE HITE. www.hite.com

응용기한

발적인 유통기한은 없지만 보다 싱그러움과 깔끔한 맛의 하이트맥주를 즐기기 위해 제조일로부터 하이트 병/캔 제품은 365일, 하이트피치는 180일 이내에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FTK시스템

하이트의 공정조리를 유지시키는 발효식 분쇄시스템인 FTK시스템으로, 용기별to 싱그러움과 깔끔한 맛의 하이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선도 관리위원회

맥주의 더욱 신선한 맛을 향유하기 위해, 하이트는 신선도 관리위원회를 결성, 용량별to 용기별to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pen Up! 하이트맥주가 먼저 시작합니다!

Fresh 365 캠페인

1년 365일 신선한 맥주를 드리기 위해 하이트는 업계 최초로 용량별to 용기별to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